

송천2동주민센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나눔 문화봉사

더수타예술단-대한적십자사술임봉사회
사랑의 나눔 자장면 500인분 준비

송천2동주민센터(동장 임아철), 송천2동주민자치위원장 회장 이재옥, 더수타예술단(단장 박숙경), 대한적십자사술임봉사회(회장 김재식)는 김남규 시의원, 김진욱 시의원, 김윤권 시의원 등과 함께 송천동 어르신들과 전미동 어르신들께 다가오는 추석 풍성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최근 사랑의 나눔 문화봉사를 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봉사는 자장면 500인분 준비, 더수타예술단 술임봉사회 등 적극적 봉사로 독거노인,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문화 재능기부공연에는 더수타댄스, 아르떼라인댄스 지역가수, 색소폰 솔네기타들이라, 가로현가야금병창 등이 무대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송천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소통하며 많은 흥겨움으로 함께했다.

정육희 더수타예술단원은 "송천2동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장면 나눔문화봉사를 하게되어 영광이다"며,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송천2동주민센터, 송천2동주민자치위원장, 더수타예술단, 대한적십자사술임봉사회는 (김남규 시의원, 김진욱 시의원, 김윤권 시의원)등과 함께 송천2동 어르신들과 전미동 어르신들께 다가오는 추석 풍성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최근 사랑의 나눔 문화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순창군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군부대 도서기증

순창군(군립도서관)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19일 육군1625부대에 합숙주 순창군수 김수영 원장, 김영석 부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군부대 장병들의 정서함양과 병영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도서기증을 순창군이 출판문화진흥원에 요청했고, 진흥원이 이를 흔쾌히 기증하면서 이뤄졌다.

2016년 12월 순창군에 이전한 1625군부대는 아직 장사구성의 다양성과 보유 장서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기증도서가 군 장병들의 자기전장은 물론 지적호기심과 학습욕구 충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전통식문화 우수성 널리 알린다

임실군이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등 교육생 36여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역 식문화 리더로서의 능력 배양 및 한국형 전통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지역의 향토식문화와 음식자원을 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며 전통식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정음의 전통식품체험장과 김제 능가맛집·향토음식체험장 등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경영자의 성공 사례 청취 및 지역의 향토음식을 직접 실습하고 맛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시 교월동, 독거어르신을 위한 행복 나눔의 장

김제시 교월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우근)는 추석 명절을 앞둔 19일 홀로 사시는 어르신 15명을 모시고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내 생애 최고의 날 어르신 섬김 행사를 펼쳤다.

7회째에 접어드는 본 사업은 협의체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가족과 연대가 되지 않거나, 자녀 없이 혼자 자내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114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운영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효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과 일대일 짝을 이뤄 흥겨운 노래에 맞춰 어르신들의 거친 손과 굵은 어깨를 주물러드려 기운을 북돋아드리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효도안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제시 교월동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 15명을 모시고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내 생애 최고의 날 어르신 섬김 행사를 펼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원주 고산면 문해교실 이봉임 할머니 전국 시화전시 교육부장관상

원주군 고산면 문해교실 이봉임(79세) 할머니 작품 '우알꼬'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9일 고산면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2018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고산면 문해교실이 최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성인문해교육 595개 기관, 1만1832명의 학습자가 참여했으며 이봉임(79세) 할머니의 '우알꼬' 작품이 대국민 투표까지 높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알꼬'는 힘든 발일을 토로하면서도 사투리 억양으로 정감있게 써내려가 호평을 얻었다.

이봉임 할머니는 "문해교실 덕분에 걸어진 세월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친구들과 더욱더 열심히 재밌게 공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병수 고산면장은 "문해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이 세상을 읽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사회복지시설 참사랑낙원서 봉사 펼쳐

전북지방우정청은 19일 김성철 청장과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 등 15명이 전주시 대성동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인 참사랑낙원을 찾아 필요한 물품을 전달 170여명 생활인들에게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외로운 이웃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우체국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도내 16개 시, 군 우체국(우편집중국) 함께 지역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찾아 지역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19일 김성철 청장과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 등 15명이 전주시 대성동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인 참사랑낙원을 찾아 필요한 물품을 전달 170여명 생활인들에게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영태 기자

한전 전북본부 소외 이웃에게 명절 용품 전달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정은호)는 노사 간부 및 15개 지사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000여만원의 러브펀드로 전통 시장에서 명절 용품을 구입 포장해 독거 어르신 100여 세대에게 배달한다.

한전 관계자는 "힘든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며, "어르신들이 언제나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정은호)는 노사 간부 및 15개 지사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000여만원의 러브펀드로 전통 시장에서 명절 용품을 구입 포장해 독거 어르신 100여 세대에게 배달한다. /김영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